

광주시, 민생 살리기 주력... 지역 경제 '탄핵 후폭풍' 최소화

긴급 민생경제회의...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지원 유기적 협력 소비 진작 캠페인·상생카드 할인율 확대·공공배달업 활성화 등

광주시와 지역 경제단체·기관들이 '12·3 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긴급 민생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 진작 캠페인,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회의에는 12·3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여파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시 산하공공기관 등 광주

지역 경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회의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상황과 내년 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광주시와 각 기관별로 '민생경제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엄 여파 등으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업 활성화 할인 프로모션 등 소비진작 방안,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이 밖에도 구내 식당 대신 직장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등 각 기관별로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책 회의의 참석자들은 "내란사태로 정치·경제·민생에까지 연쇄적 충격파가 전해오고 있다"며

"비상사태에 유관 기관과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이다. 지역 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시청 접견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지역경제 회생 방안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점유율 17%로 전국 모범이 된 광주 공공배달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또 금융권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최근 개소한 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요청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위 녹이는 '사랑의 팔죽' 12일 광주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에서 열린 팔죽 나눔 행사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커다란 기마술에 불을 때고 팔죽을 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5개 구청장 "내년초 자치구별 지역화폐 발행"

민생안정 대책 발표

광주시 5개 구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구별 지역화폐를 새로 발행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2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5개 자치구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체크카드형 또는 선불카드형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며, 광주상생카드의 7% 할인율에 더해 자치구의 지원을 통해 3% 추가 할인율 제

공, 총 10%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든다. 자치구 할인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 결제할 때만 적용되도록 한다.

광주시 북구를 시작으로 할인혜택 기능을 갖춘 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시작됐다. 북구는 지난 1일 북구형 지역화폐 '북구사랑상품권' 조례를 제정했으며, 남구 또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3개 자치구 또한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지역화폐는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제도 등을 마련해 각각 시행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구청장협의회는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회 현장의 선결제 캠페인을 지역상권 살리는 문화캠페인으로 승화시키는 등 추가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택 광주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민생은 신음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혼란과 어려움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산 전통 장' 세계인 입맛 사로잡다

올해 된장 등 11월까지 36개국 3195t 수출...10년간 4.7배 증가

전남산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케이(K)-푸드 열풍이 전통 장류 수요 확대를 이끌며,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전남산 장류 수출량이 약 3195t으로 734만 2000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4년 670t(160만 8000달러)보다 4.7배 증가한 규모다.

품목별로는 간장이 1330t으로 3.9배, 된장이 138t으로 1.6배, 고추장이 1490t으로 8.5배, 기타 장류가 236t으로 3.4배 등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36개국으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품 세계 일류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담양의 농업회사법인 ㈜고려전통식품에는 된장과 딸기 고추장

소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왔으며, 순천 소재 ㈜매일식품에는 필리핀 수출용 불고기 소스와 고추장소스 개발에 업체당 6800만원을 지원했다.

중국 해외박람회 참가, 상하이-베이징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등도 진행하며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선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이는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된 한국 전통 음식문화로, 전 세계적으로 전통 장류의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다.

전남도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 장류를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함평 돌머리마을, 어촌체험 전국 1위

함평 돌머리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 돌머리마을은 제 17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전국 1등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함평 돌머리마을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전국 4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등급 심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험·숙박·음식 3개 부문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여수 용전마을도 주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한 어촌 경관 및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빛고을택시와 협약...광역지자체 첫 고령자 이동권 보장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르신 전용 콜택시'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콜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택시 호출앱 사용 등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이동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르신 콜택시 도입에 따라 광주에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전용 전화(062-525-5555)를 이용

해 출발·도착지를 전달하고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광주시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주요 거점시설을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몰라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어르신 콜택시가 어르신들에게 봄날의 햇볕처럼 따스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